
K I E T 경제·산업동향

2014. 10.

산 업 연 구 원
동 향 분 석 실

< 차례 >

< 요약 >	1
1. 해외경제	3
2. 실물경제	6
3. 국내금융	8
4. 산업별 동향	10
5. 고용	12
6. 수출입	13
< 부 록 >	
1. 2015년 한국 경제의 주요 특징과 경제 전망	16
2. 2015년 및 중기 경제전망	19

< 요약 >

□ 해외경제 : 미 달러화 초강세 & 유가 가파른 하락

- 미국은 실물지표들이 3분기 들어 비교적 완만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체감지표 및 선행지수의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경기 여건의 개선 추이
- 일본은 7월 생산 증가와 소비 감소 등 실물지표들의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유로권도 역내 생산 증가와 소비 감소 등 실물지표들이 불안정
- 중국은 8월 생산과 소비, 수출 등 실물지표들의 증가세가 전달보다 현저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내·외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
- 미국의 양호한 경제지표에 따른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우려와 일본은행과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유지 등을 배경으로 미 달러화는 초강세
- 세계경기 부진과 원유공급 증대, 산유국 간 이해 상충, 미국의 원유 수출 개시, 미 달러화 강세 등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유가는 가파르게 하락

□ 실물경기 : 8월 전산업 생산지수 전월대비 0.6% 감소

- 8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대비 0.6% 감소, 전년동월대비로는 0.6% 증가
 - 광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3.8% 감소, 내수소비재 출하는 2.1% 감소, 설비 투자는 10.6% 감소, 건설기성은 1.0% 증가

□ 금융 : 8월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폭 확대, 10월초(9.26~10.3) 국고채 금리 하락 및 원/달러 환율 상승

- 8월 은행의 기업대출은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확대되었고,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역시 증가폭 확대
- 국고채(3년) 금리는 美 국채금리 하락과 더불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지속 등의 영향으로 하락
- 원/달러 환율은 美 고용지표 호조, 연준의 조기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달

러화 강세 및 추가 기준금리 인하 전망 등의 영향으로 상승

□ 산업별 동향 : 8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비 2.7%, 전월대비 3.8% 각각 감소
8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비 2.1%, 전월대비 0.3% 각각 증가

○ 제조업생산(100.7)은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영상음향통신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석유정제, 1차금속, 금속가공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비 2.7% 감소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는 감소하였고, 중공업 및 경공업도 감소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4.0%로 전월에 비해 4.2%p 하락

○ 서비스업생산(107.8)은 전문·과학·기술, 예술·스포츠·여가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보험, 보건·사회복지, 부동산·임대, 숙박·음식점,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비 2.1% 증가

- ICT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 1.4% 감소

□ 고용 : 8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59.4만명(2.3%) 증가

○ 8월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 감소세 확대와 금융보험업 부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과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부문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2.3% 증가

□ 9월 수출 6.8% 증가, 수입 8.0% 증가, 무역흑자 34억 달러

○ 9월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6.8% 증가한 477억 달러, 수입은 8.0% 증가한 443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34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

○ 업종별로는 반도체·철강·석유화학·일반기계 등의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그 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컴퓨터의 수출은 증가세로 전환된 반면 무선통신기기는 감소세로 전환

1. 해외경제

□ 미국 : 8월 실물지표 완만, 연준 현 초저금리 유지 입장 재확인

○ 8월 생산의 소폭 감소와 소비 증가 지속 등 실물지표들이 3분기 들어 비교적 완만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체와 소비자들의 체감지표 및 선행지수의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경기 여건의 개선 추이가 지속

- 산업생산은 8월중 자동차 생산의 대폭 감소(-7.6%) 등의 영향으로 전월비 0.1% 감소한 반면, 소매판매는 자동차 판매의 확대(1.5%)를 비롯해 전자제품과 건축자재 등 전 품목들의 소비 호조에 힘입어 0.6% 증가
- 미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를 반영하는 ISM 지수는 59까지 추가 상승하면서 2011년 4월(59.4)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소비자 신뢰지수도 현재 경기 여건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2007년 10월 이후 최고치(92.4)
- 8월 실업률은 6.1%로 재차 하락하면서 6%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떨어지고, 경기선행지수도 소폭이나마 상승하면서 7개월 연속 상승세 유지
- 한편,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 최종치는 기업들의 투자 확대에 힘입어 수정치 4.2%를 웃도는 4.6%를 기록, 2011년 4분기(4.6%) 이후 최고치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대비, %)

	2013년		2014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8월
국내총생산(GDP, 연율) (전년동기비, %)	2.2	3.5 (3.1)	-2.1 (1.9)	4.6 (2.6)					
산업생산 (IT 생산)	2.9 (9.6)	1.2 (0.5)	1.0 (0.6)	1.3 (3.9)	0.1 (1.4)	0.5 (2.2)	0.3 (-0.1)	0.2 (0.5)	-0.1 (1.5)
내구재수주	5.2	2.7	-1.4	4.5	0.9	-0.9	2.7	22.6	-
소매판매	4.2	0.8	0.2	2.3	0.6	0.4	0.4	0.3	0.6
소비자물가	1.5	0.3	0.5	0.7	0.3	0.4	0.3	0.1	-0.2
실업률(%)	7.4	7.0	6.7	6.2	6.3	6.3	6.1	6.2	6.1
무역수지(10억US\$)	-476.4	-112.4	-124.5	-130.3	-46.0	-43.5	-40.8	-40.5	-
ISM 제조업지수 ¹⁾	53.9	56.7	52.7	55.2	54.9	55.4	55.3	57.1	59.0
소비자 신뢰지수 ²⁾	73.2	74.0	80.5	83.4	81.7	82.2	86.4	90.3	92.4
경기선행지수 ³⁾	96.6	99.1	100.0	101.8	101.2	101.8	102.5	103.6	103.8

자료 : 미 상무부, 노동부, 연준, 컨퍼런스 보드, 공급자관리협회(ISM)

주 : 1)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하회하면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함.

2) 1985년=100, 3) 2004년=100

□ 일본 : 7월 실물지표 혼조, 일본은행(BOJ) 추가 완화 가능성 시사

- 지난 7월 생산 및 수주 증가와 소비 감소 등 실물지표들은 여전히 혼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비세 인상 직후인 4~5월에 비해서는 변동 폭이 크게 축소. 일본은행(BOJ)은 경기 선순환을 기대하면서도 물가 상승 목표(2%)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완화를 강하게 시사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대비, %)

	2013년		2014년						
	연간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7월
국내총생산(GDP)	1.5	0.0	1.5	-1.7					
광공업생산	-0.6	1.8	3.0	-3.8	0.7	-2.8	0.7	-3.4	0.4
민간기계수주	5.7	1.9	4.2	-10.4	19.1	-9.1	-19.5	8.8	3.5
소매판매	1.2	1.4	3.9	-7.0	6.4	-13.6	4.6	0.5	-0.5
소비자물가	0.4	0.5	0.0	2.5	0.3	2.1	0.4	-0.1	0.0
실업률(%)	4.0	3.9	3.6	3.6	3.6	3.6	3.5	3.7	3.8
무역수지(10억엔)	-11,468	-3,709	-5,051	-2,554	-1,451	-815	-911	-829	-962
경기선행지수 ¹⁾	108.3	111.4	109.5	104.9	107.1	106.0	104.1	104.7	105.4

자료 : 일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등

주 : 1) 2010년=100

□ 중국 : 8월 내·외수 지표 둔화세 현저, 인민은행 유동성 공급 발표

- 8월 생산과 투자, 소비, 수출 등 내·외수 관련 실물지표들의 증가세가 전 달보다 현저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내·외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재차 고조. 인플레이 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서 인민은행은 5대 국영은행들에 5천억 위안 규모(84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발표(9.17일)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비, %)

	2013년		2014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8월
국내총생산(GDP)	7.7	7.7	7.4	7.5					
산업생산	9.7	10.0	8.7	8.9	8.7	8.8	9.2	9.0	6.9
고정투자(누계기준)	19.6	19.6	17.8	17.3	17.3	17.2	17.3	17.0	16.5
소매판매	13.1	13.5	11.9	12.3	11.9	12.5	12.4	12.2	11.9
소비자물가	2.6	2.9	2.3	2.2	1.8	2.5	2.3	2.3	2.0
수출	8.7	7.5	-4.7	5.0	0.9	7.0	7.2	14.5	9.4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유로권 : 7월 역내 실물지표 불안정, 유럽중앙은행(ECB) 금리 인하

- 지난 7월 역내 생산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올 들어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역내 실물지표들은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 유럽중앙은행(ECB)은 9월초 전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역내 경기 부양 의지를 강력히 시사

유로권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대비, %)

	2013년		2014년						
	연간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7월
국내총생산(GDP)	-0.4	0.3	0.2	0.0					
산업생산	-0.7	0.6	0.2	0.0	-0.5	1.1	-1.1	-0.3	1.0
소매판매	-0.8	-0.1	0.6	0.3	0.0	0.1	0.2	0.3	-0.4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4	0.8	0.7	0.6	0.5	0.7	0.5	0.5	0.4
무역수지(10억유로)	158.0	43.5	42.6	43.6	14.6	14.6	15.2	13.8	12.2
경기체감지수 ¹⁾	93.8	99.1	101.6	102.2	102.5	102.0	102.6	102.1	102.1

자료 : 유로통계청(Eurostat), 유로중앙은행(ECB) 등

주 : 1) 2000년=100

□ 국제금융·유가 : 미 달러화 초강세 & 유가 가파른 하락

- 미국의 양호한 경제지표에 따른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우려와 일본은행(BOJ)과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 유지 등을 배경으로 미 달러화는 초강세 지속. 엔화와 유로화는 달러화 대비 각각 6년과 2년여 만에 최저
- 세계경기 부진과 원유공급 증대, 산유국 간 이해 상충, 미국의 원유 수출 개시, 미 달러화 강세 등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유가는 가파르게 하락. OPEC은 내년도 석유 수요 전망치를, EIA도 유가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주요 국제가격 변수

(기말기준, %, 달러/배럴)

	201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10일
엔/달러	102.04	101.80	103.23	102.24	101.77	101.33	102.80	104.09	109.65	107.66
달러/유로	1.3486	1.3802	1.3769	1.3867	1.3635	1.3692	1.3390	1.3132	1.2631	1.2628
미 국제 (10년만기)	2.64	2.65	2.72	2.65	2.48	2.53	2.56	2.34	2.49	2.28
WTI유	97.5	102.6	101.6	99.7	102.7	105.4	98.2	96.0	91.2	85.8
두바이유	104.3	105.3	104.6	104.9	106.4	109.0	104.4	101.1	95.5	88.3

자료 : 한국은행, 「국제금융속보」

2. 실물경제

□ 실물경기 : 8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전월대비 0.6% 감소

○ 8월 전산업 생산은 서비스업 증가에도 불구하고, 광공업 생산의 부진으로 전월대비 0.6% 감소, 전년동월대비로는 0.6% 증가

-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전월대비 2.4%), 석유정제(1.6%)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업계 파업에 따른 영향(자동차 -16.2%)과 일시적인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기타 운송장비 -12.7%)으로 전월대비 3.8% 감소, 전년동월대비로는 2.8% 감소
- 내수소비재 출하는 내구재 출하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월대비 2.1% 감소(전년동월대비 4.2% 감소), 소매판매액은 준내구재 증가로 전월대비 8.3% 증가
- 설비투자는 기타 운송장비, 일반 기계류 부분의 투자 감소로 전월대비 10.6% 감소(전년동월대비 9.8% 감소),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대비 1.0% 증가(전년동월대비 0.4% 감소)

실물경제 주요지표

(전년동기비, %)

	2013		2014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8월
GDP성장률	3.0*	3.7* (0.9)*	3.9* (0.9)*	3.5* (0.5)*	-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2.0*	2.2* (0.6)*	2.5* (0.2)*	1.5* (-0.3)*	-	-	-	-	-
내수소비재 출하	-0.6	-1.4 (-2.0)	-2.3 (1.2)	1.5* (0.8)*	2.1 (-0.6)	0.3 (1.0)	2.3 (2.9)	0.9* (-1.2)*	-4.2* (-2.1)*
설비투자(국민계정)	-1.5*	10.9* (5.6)*	7.3* (-1.9)*	7.7* (1.1)*	-	-	-	-	-
설비투자 추계	-1.3	10.4 (5.9)	5.9 (-5.2)	6.2 (2.1)	10.7 (2.4)	5.5 (-0.8)	2.4 (-1.3)	2.8* (3.4)*	-9.8* (-10.6)*
건설투자(국민계정)	6.7*	5.4* (-5.2)*	4.3* (5.1)*	0.2* (0.4)*	-	-	-	-	-
건설기성액	10.1	9.7 (-0.7)	6.5 (1.5)	0.1* (0.2)*	3.1 (6.8)	-1.1* (-5.3)*	-1.5* (2.7)*	-0.8* (-1.5)*	-0.4* (1.0)*
전산업생산지수	1.6	2.6 (1.0)	1.7 (0.6)	0.8* (-0.5)*	1.4 (-0.6)	-0.6* (-1.0)*	1.7* (2.3)*	2.7* (0.3)*	0.6* (-0.6)*
광공업생산지수	0.3	1.7 (1.9)	0.7 (0.3)	0.3 (-0.9)	2.5 (0.0)	-2.1 (-2.7)	0.5 (2.7)	3.9* (1.5)*	-2.8* (-3.8)*
광공업출하지수	0.4	1.8	0.2	-0.2	1.8	-1.5	-0.7	2.1*	-3.3*
광공업재고지수	5.0	5.0	5.7	7.7	8.5	6.2	7.7	7.1*	5.2*
제조업 평균가동률	76.2	76.5	77.2	76.3	77.8	74.6	76.4	78.2*	74.0*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을 나타내며, 제조업 가동률은 당기수치,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 소비자물가 : 9월중 전월대비 0.1% 하락, 전년동월대비 1.1% 상승

- 9월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가격이 전월에 이어 상승(전월대비 1.8%)하였으나, 석유류 가격 하락 지속(-1.7%)과 서비스업 부문의 가격 하락(-0.1%)으로 전월대비 0.1% 하락

□ 실업률 : 8월 계절조정 실업률 3.5%

- 8월 계절조정 실업률은 추석전 인력수요 확대 등으로 고용이 확대되었으나 경제활동인구도 더불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한 3.5%를 기록

- 실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10.7만명)가 지속되면서 89.0만명을 기록
-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한 60.8%를 기록하였고,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1%p 상승한 62.9%를 기록

물가 및 고용

(%)

	2013년		2014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기대비)	1.3	-0.0	0.9	0.3	0.1	0.2	-0.1	0.1	0.2	-0.1
(전년동기대비)	1.3	1.1	1.1	1.6	1.5	1.7	1.7	1.6	1.4	1.1
실업률	3.1	3.0	3.5	3.7	3.7	3.7	3.6	3.4	3.5	—

자료 : 통계청

주 : 실업률은 계절조정치

3. 국내금융

□ 기업자금 및 가계대출 : 8월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폭 확대

- 8월 은행의 기업대출은 전월보다 증가폭 확대(7월 2.7조원→8월 3.9조원, 대기업 0.4조원, 중소기업 3.5조원)
 - 중소기업대출은 은행들의 영업강화 및 추석자금 수요가세 등의 영향으로 상당폭 증가
 - 대기업대출은 일부 우량기업이 CP발행을 통해 단기대출을 상환한 영향 등으로 인하여 소폭 증가에 그침
- CP는 공기업 부채감축 노력 등으로 순상환 전환(7월 3.1조원→8.1~20일 -0.8조원)
- 회사채는 계절적 비수기의 영향과 더불어 기준금리 결정을 전후하여 일부 기업들이 발행을 유보함에 따라 소폭 순상환(7월 2.9조원→8월 -0.03조원)
-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전월보다 확대(7월 0.3조원→8월 0.8조원)

기업 자금조달

(기간 중 말잔 증감, 조원)

	2012		2013		2014				14.8월 말 잔액
	연중	8월	연중	8월	1~8월	6월	7월	8월	
■ 은행 원화대출	32.9	3.7	34.8	4.4	39.3	0.3	2.7	3.9	663.0
(대 기업)	27.1	3.0	8.2	0.6	14.0	-1.2	0.1	0.4	164.4
(중소기업)	5.8	0.7	26.6	3.8	25.3	1.5	2.7	3.5	498.7
<개인사업자>	15.0	1.3	17.1	1.7	11.5	1.4	1.7	1.9	202.0
■ 사모사채 인수	-2.4	-0.1	-2.1	-0.01	-0.9	-0.2	0.0	-0.1	6.1
■ 회사채 순발행	17.5	1.8	3.1	-1.3	0.2	-0.1	2.9	-0.03	..
■ CP 순발행	5.4	1.7	1.0	-1.1	2.2	-0.5	3.1	-0.8	29.9
■ 주식발행	2.8	0.1	6.5	0.1	4.1	0.9	0.3	0.8	..

자료 : 한국은행

- 8월 은행의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은 증가폭 확대(7월 2.8조원→8월 4.6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량 증가, 정책모기지론 취급 확대 등으로 큰

폭 증가(모기지론 양도 포함 : 7월 2.6조원→8월 4.6조원)

-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은 신용대출이 상환됨에 따라 소폭 증가에 그침(7월 0.3조원→8월 0.0조원)

은행 가계대출 추이

(조원)

	2012		2013		2014				148월말잔액
	연중	8월	연중	8월	1~8월	6월	7월	8월	
은행 가계대출	11.5	1.5	13.9	1.9	16.6	3.6	3.1	5.0	497.0
[모기지론양도 포함시]	20.9	2.8	23.3	2.8	13.2	3.1	2.8	4.6	536.8
■주택담보대출	10.9	0.7	11.3	0.8	17.3	3.1	2.8	5.0	345.5
[모기지론양도 포함시]	20.3	2.1	20.7	1.8	13.9	2.6	2.6	4.6	385.3
■마이너스통장대출등	0.7	0.8	2.8	1.1	-0.7	0.5	0.3	0.0	150.7

자료 : 한국은행

□ 금리 및 환율 : 10월초(9.26~10.3) 금리 하락 및 원/달러 환율 상승

- 국고채(3년) 금리는 美 국채금리 하락과 더불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지속 등의 영향으로 하락(9.26일 2.32%→10.3일 2.25%, 하락)
- 원/달러 환율은 美 고용지표 호조, 연준의 조기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달러화 강세 및 추가 기준금리 인하 전망 등의 영향으로 상승(9.26일 1,044.40원→10.3일 1,061.40원, 17원 상승)

주요 금리 및 환율 추이

(단위 : %, 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Q	2Q	3Q	4Q	9월	10.3
국고채(3년)	3.34	2.82	2.52	2.88	2.82	2.86	2.30	2.25
회사채(3년,AA-)	4.21	3.29	2.88	3.31	3.24	3.29	2.68	2.63
CD(91일)	3.55	2.89	2.81	2.69	2.66	2.66	2.35	2.35
CP(91일)	3.71	3.00	2.86	2.76	2.73	2.90	2.42	2.42
원/달러	1,151.80	1,070.60	1,111.10	1,142.00	1,074.70	1,055.40	1,055.20	1,061.40
원/100엔	1,485.16	1,247.50	1,180.13	1,167.15	1,098.67	1,004.66	960.24	973.60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금융감독원

주 : 기말종가 기준

4. 산업별 동향

□ 8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비 2.7%, 전월대비 3.8% 각각 감소

- 제조업생산(100.7)은 자동차(-14.8%), 기타운송장비(-12.7%), 영상음향통신(-13.6%)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석유정제(8.4%), 1차금속(4.6%), 금속가공(5.4%)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비 2.7% 감소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2.2%)는 감소하였고, 중공업(-2.7%) 및 경공업(-3.1%)도 감소
 - 전월대비 생산이 감소한 업종은 자동차(-16.2%), 기타운송장비(-12.7%), 기계장비(-3.5%) 등이며, 반도체 및 부품(2.4%), 석유정제(1.6%), 화학제품(0.6%)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3.8% 감소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110.5)는 영상음향통신, 의료정밀광학, 금속가공, 자동차 등이 감소하였으나, 석유정제, 1차금속, 반도체 및 부품, 화학제품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4%, 전월대비 0.3% 각각 증가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22.9%로 전월에 비해 1.0%p 상승하였고, 재고출하순환도를 보면 출하의 증가폭(2.3% → -1.8%)은 축소되었으며, 재고의 증가폭(7.4% → 5.2%)은 축소된 모습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4.0%로 전월에 비해 4.2%p 하락

□ 8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비 2.1%, 전월대비 0.3% 각각 증가

- 서비스업생산 (107.8)은 전문·과학·기술(-1.5%), 예술·스포츠·여가 (-1.9%)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보험(6.9%), 보건·사회복지(5.8%), 부동산·임대(4.9%), 숙박·음식점(1.4%),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1.0%)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비 2.1% 증가
 - 전월대비로는 도소매, 교육, 보건·사회복지, 금융·보험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협회·수리·개인, 예술·스포츠·여가, 전문·과학·기술, 운수 등이 감소하여 0.3% 증가

- ICT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 1.4% 감소

산업 활동 추이

(2010=100, 전년동기비 %)

	2012	2013	2014		2014		
			1/4	2/4*	6월	7월*	8월*
광 공 업	107.4	107.7	106.4	109.2	107.9	111.7	100.6
증 감 률	1.3	0.3	0.7	0.3	0.5	3.9	-2.8
S.A.전월(기)비	-	-	0.3	-0.9	2.7	1.5	-3.8
제 조 업	107.5	107.8	105.8	109.6	108.3	112.1	100.7
증 감 률	1.4	0.3	0.6	0.3	0.3	4.0	-2.7
섬 유	-2.4	-1.7	0.0	-0.8	-1.6	3.5	-2.0
화 학	3.8	3.7	1.3	1.3	-1.2	-0.2	0.0
철 강	1.0	-0.6	5.9	4.2	5.9	6.7	5.4
반도체	8.1	10.1	1.8	11.0	23.8	13.0	9.3
컴퓨터,주변장치	-16.9	-16.6	6.0	4.0	20.9	19.7	13.0
통신, 방송장비	-3.7	-6.1	-9.4	-11.5	-16.0	-8.0	-12.1
의료, 정밀, 광학	5.7	10.7	-5.0	-16.6	-12.8	-8.2	-15.0
기계, 장비	-2.1	-4.5	2.3	-1.8	-5.3	0.5	-1.2
자동차	-0.2	1.2	7.6	3.6	-0.8	20.3	-14.8
조 선	4.9	-7.3	-24.2	-16.2	-13.5	-5.5	-15.2
S.A.전월(기)비	-	-	0.4	-1.1	2.8	1.6	-3.8
중 공 업	1.6	0.4	0.5	0.1	0.3	4.2	-2.7
경 공 업	0.1	-0.1	1.8	0.9	0.6	2.8	-3.1
제조업ICT	2.4	3.3	-0.8	0.8	5.9	0.4	-2.2
서비스업	104.8	106.3	104.9	108.2	109.7	108.5	107.8
총지수	1.6	1.4	1.9	1.4	2.5	2.7	2.1
하수,폐기물처리	-0.6	-0.4	1.4	-0.3	1.4	3.5	-0.4
도매 및 소매	0.8	-0.2	0.5	-0.2	0.3	-0.2	0.3
운수	1.2	1.1	0.6	0.0	0.4	3.4	0.5
숙박 및 음식점	-1.2	0.4	0.5	-2.0	-1.1	2.7	1.4
출판,영상,방송	3.0	1.9	1.1	3.1	7.7	1.6	1.0
금융 및 보험	2.8	0.5	1.4	3.5	5.1	6.5	6.9
부동산 및 임대	-4.8	2.5	4.1	4.2	1.6	5.6	4.9
전문, 과학 및 기술	3.7	3.3	3.1	0.9	6.7	3.0	-1.5
사업시설관리지원	3.5	2.2	3.2	3.0	2.7	3.2	2.2
교육	0.9	0.8	1.9	0.6	1.1	1.2	0.8
보건 및 사회복지	6.7	5.0	6.9	6.2	5.8	4.9	5.8
예술,스포츠,여가	2.8	-0.5	1.4	-4.7	-3.5	4.5	-1.9
협회,수리,기타개인	-1.4	5.3	2.1	-0.3	-0.9	0.8	0.1
S.A. 전기비	-	-	0.5	0.0	1.7	-0.3	0.3
ICT서비스업	3.9	1.6	0.3	2.3	7.0	-0.8	-1.4

자료 : 통계청

주 : *은 잠정치

5. 고용

□ 취업자 수 : 8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59.4만명(2.3%) 증가

○ 8월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 감소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전월에 이어 제조업과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부문의 증가가 이어지면서 전년동월대비 2.3% 증가

-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는 4개월 연속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전년동월대비 5.3% 증가
-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는 추석 전월의 계절적 요인에 의한 도소매업 부문의 증가세 확대와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견조한 증가세로 전년동월대비 5.0% 증가
- 전기·운수·통신·금융업 부문 취업자는 금융보험업의 부진과 운수업 부문의 감소세 확대,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부문의 증가세 축소 등으로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전년동월대비 2.9% 감소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부문의 취업자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부문의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고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부문도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전년동월대비 2.7% 증가

취업자 추이

(천명, 전년동기비, %)

	2012	2013		2014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산업	24,681	25,066	25,346	24,913	25,790	25,684	25,811	25,875	25,979	25,885
전년동기대비	1.8	1.6	2.2	3.0	1.8	2.3	1.6	1.6	2.0	2.3
농림·어업	-0.9	-0.5	-1.0	1.0	-3.2	-1.8	-3.4	-4.4	-6.4	-7.3
광공업	0.3	1.9	1.2	2.9	3.2	2.2	3.5	3.9	4.5	5.2
제조업	0.3	1.9	1.2	3.0	3.3	2.3	3.6	3.9	4.6	5.3
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	2.4	1.6	2.6	3.2	2.0	2.7	1.7	1.6	2.2	2.6
건설업	1.3	-1.1	-0.5	1.6	0.6	-0.2	0.8	1.3	3.2	3.7
도소매·음식숙박업	1.9	0.6	2.6	5.5	3.8	5.5	3.1	2.9	4.9	5.0
사업·개인·공공서비스및기타	3.2	2.7	3.6	2.4	1.9	2.4	1.6	1.8	1.9	2.7
전기·운수·통신·금융	1.4	2.1	1.9	1.9	-0.5	0.1	-0.4	-1.2	-2.4	-2.9

자료 : 통계청

6. 수출입

□ 9월 수출 6.8% 증가, 수입 8.0% 증가, 무역흑자 34억 달러

○ 9월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6.8% 증가한 477억 달러, 수입은 8.0% 증가한 443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34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

- 8월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수출은 조업일수 증가(1일) 및 주요 품목의 수출호조로 한달만에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일평균수출액도 22.7억 달러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록 달성

- 수입은 자동차 등 소비재의 수입이 두자릿 수 증가한 가운데,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무선통신기기 부품 등 자본재와, 철강 등 원자재 수입이 모두 증가

* 원유수입은 도입물량이 전년동월 대비 2.9% 증가하였으나 도입단가(106.4달러/배럴)가 3.0%나 하락함으로써 금액으로는 0.3%가 감소한 82억 달러를 기록

최근 수출입 동향

(단위 : 억 달러, %)

	2013		2014						
	연간	4/4	1/4	2/4	3/4	7월	8월	9월	1~9월
수출	5,596	1,464	1,376	1,457	1,421	482	462	477	4,256
	(2.1)	(4.7)	(1.7)	(3.2)	(3.9)	(5.2)	(-0.2)	(6.8)	(2.9)
수입	5,156	1,331	1,323	1,308	1,331	459	429	443	3,962
	(-0.8)	(2.5)	(2.0)	(3.2)	(5.6)	(5.8)	(3.1)	(8.0)	(3.6)
무역수지	440	133	52	149	91	23	34	34	292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 1)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2) 9월 실적은 잠정치.

□ 반도체·철강·석유화학·일반기계의 수출증가세 지속

- **반도체** : 프리미엄 스마트폰 성장둔화로 시스템 반도체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아이폰 6, 갤럭시 노트4 등 주요 스마트폰 출시에 따른 모바일 DRAM 수요 증가로 전체 수출은 증가
- **자동차** : 일부 업체의 부분 파업, 특근 거부에 따른 생산차질에도 불구하고, 조업일수 증가(1일) 및 미국과 서유럽 지역의 수요 회복으로 소폭 증가
- **자동차부품** : 조업일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국의 경기침체로 수출이 감소
- **조선** : 드릴쉽,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인도 물량 증가로 수출이 대폭 증가
- **디스플레이** : 그동안 지속된 패널가격 하락세가 진정된데다, 노트북 및 태블릿 PC용 패널 수요 증가로 6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 기록
- **무선통신기기** : 아이폰6 등 경쟁업체의 신제품 출시와 중국의 이통사 보조금 축소, 샤오미 등 중국 후발업체의 물량 공세에 따른 가격경쟁 등으로 수출이 다소 부진
- **철강** : 기저효과 및 미국·EU 등 선진국의 수요 회복, 주력 수출품인 열연강판, 아연도강판의 수출 확대로 큰 폭의 증가세 지속
- **섬유** : 선진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동남아 개도국의 수요도 증가하나, 중국의 수요 회복 지연으로 전체 수출은 소폭 감소
- **석유제품** :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제품 수출단가의 하락과 대중국 수출 부진 등으로 수출이 감소
- **일반기계** : 우리나라 최대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다소 회복된데다, 아세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두자릿수 증가
- **석유화학** : 기저효과 및 삼성토탈·SK 인천석유화학의 PX 설비 가동에

따른 공급확대로 수출이 증가

○ 가전 : 작년 9월 수출호조(19.0%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월드컵 특수효과
의 소멸 등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

○ 컴퓨터 : 중국, CIS, 아세안 등 개도국으로의 수출 호조로 증가세로 전환

주요 산업별 수출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13		2014						
	연간	4/4	1/4	2/4	3/4	7월	8월	9월	1~9월
자동차	3.0	11.4	5.4	2.3	2.8	19.8	-17.3	6.9	3.5
자동차부품	6.0	10.7	2.0	6.8	1.5	15.1	-6.6	-4.3	3.4
조선	-6.5	25.5	-5.0	15.6	5.1	-13.1	4.1	23.6	5.6
일반기계	-3.1	-2.8	0.4	0.7	8.0	9.2	2.5	12.2	2.9
철강	-12.1	-9.4	2.9	11.1	19.4	19.9	5.7	33.8	11.0
석유화학	5.4	4.1	-4.6	1.9	5.5	7.0	2.0	7.5	0.8
석유제품	-5.9	-10.2	-7.5	4.3	4.2	9.9	6.3	-3.4	0.0
섬유	2.3	7.9	2.1	0.2	-0.8	4.6	-6.7	-1.0	0.5
가전	17.8	26.5	10.3	8.1	-12.9	7.4	-19.2	-24.5	0.7
무선통신기기	21.2	13.9	22.8	4.7	7.7	22.5	6.7	-3.9	11.2
컴퓨터	-8.3	-12.6	-6.7	-7.5	2.9	-15.5	-4.9	30.5	-3.7
반도체	13.3	14.2	14.6	7.0	4.8	0.9	5.0	8.1	8.5
디스플레이	-7.8	-16.0	-13.0	-4.1	4.9	4.9	0.1	10.0	-4.4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 9월 실적은 추정치.

부록	2015년 한국 경제의 주요 특징과 경제 전망
----	---------------------------

현대경제연구원(2014.10.02)

- 2015년 한국경제는 ① ‘30-50 클럽’¹⁾ 가입과 ②4년 연속 고용률 신기록 달성, ③주택 경기 활성화로 내수 회복을 가속화하는 반면, 저성장·저물가 기조의 장기화 여파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는 등 희망과 우려가 혼재할 전망

□ 2015년 한국 경제의 주요 특징

- [‘30-50 클럽’ 가입] 2015년 한국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 세계 일곱 번째로 30-50 클럽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

- 이는 주요 선진국(G7)중 캐나다를 제외한 6개국이 30-50 클럽 국가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며, 정부재정과 부채, 물가 등 거시경제 부문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국가신용등급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기대

- [4년 연속 고용률 신기록] 중장년층과 여성을 중심으로 고용구조가 개선되면서 15~64세 고용률이 2015년 66.2%를 기록,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

- 기존의 고용 취약계층인 여성, 장년층,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 확대가 지속되는 등 질적 향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고용 확대 기조는 가계소득 및 소비 증대로 이어지면서 내수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

- [주택경기가 내수회복의 비타민] 주택경기 회복은 건설경기과 민간소비, 관련 서비스 생산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내수 회복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

- 주택 거래의 증가로 이사 및 리모델링, 임대·금융 서비스도 활발해질 전망

- [디플레이션 우려 지속] 저성장·저물가 기조의 장기화로 디플레 우려가 지속

- 실제GDP가 잠재GDP를 밑도는 디플레이션갭이 8분기 동안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물가가 잠재물가를 밑도는 마이너스 물가갭 또한 12분기나 지속

1)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명

- 저성장·저물가 기조를 끊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2015년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필요

○ **[세계경제, 수요부족發 장기부진 우려]** 2015년 세계경제는 소비, 투자 등 유효수요의 부족에 따른 경기부진의 장기화 현상(secular stagnation)이 지속될 가능성

- 주요국의 소비증가율이 장기 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며, 미래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 총투자가 총저축을 하회하는 현상이 지속될 전망

○ **[중국에 발목잡힌 수출]**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교역구조 변화에 따른 중국의 수입수요 둔화는 2015년에도 한국의 총수출에 부정적 요인

○ **[엔저공포와 수출경쟁력 약화]** 2015년에도 원/엔 환율의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기업이 본격적으로 수출단가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한국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우려. 2015년에 원/100엔 환율이 평균 950원으로 떨어질 경우 한국 총수출이 4.2%감소하고, 900원까지 떨어질 경우 8.8% 급감할 것

□ 시사점

○ 저성장·저물가 기조에서 탈출하기 위해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

- 첫째, 2015년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함
- 둘째,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을 강화하여 자산효과로 인한 민간소비 회복, 건설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유도
- 셋째, 고용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을 통해 가계소득 증대를 도모
- 넷째, 환율 하락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미세조정이 필요하며, 균형환율 수준에서 과도하게 이탈하지 않도록 유념

〈표 1〉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2.3	3.0	3.7	3.6	3.6	3.5	3.6	3.6
	민간소비(%)	1.9	2.0	2.0	2.6	2.3	3.0	2.6	2.8
	건설투자(%)	-3.9	6.7	1.9	1.8	1.9	1.6	4.3	3.0
	설비투자(%)	0.1	-1.5	7.6	3.9	5.7	4.2	6.0	5.1
대외거래	경상수지(억 달러)	508	799	392	408	800	320	360	680
	무역수지(억 달러)	283	440	202	231	433	192	234	426
	수출(증가율)	-1.3	2.1	2.5	3.7	3.1	4.1	4.7	4.4
	수출(증가율)	-0.9	-0.8	2.6	4.4	3.5	4.8	5.0	4.9
소비자물가(평균 %)		2.2	1.3	1.4	1.9	1.7	2.0	1.9	1.9
15~64세 고용률 %)		64.2	64.4	65.0	65.6	65.3	66.0	66.5	66.2

주 : E(Expectation)은 전망치.

부록	2015년 및 중기 경제전망
----	-----------------

국회예산정책처(2014.10.02)

- 2015년 국내경제는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세로 인한 수출여건의 개선과 내수의 완만한 증가세로 2014년(3.6%)보다 0.2%p 높은 3.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회복 속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연평균 5.1%)에 비해 완만할 것으로 전망
 - 첫째, 세계 교역량의 빠르게 개선되지 못한 가운데 중국의 수요수입약화(성장 전환정책과 중간재 및 부품의 자급률 상승)로 우리나라 수출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회복이 예상
 - 둘째, 새 경제팀의 내수활성화 대책 및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취업구조의 취약성(저임금 생활서비스부문에 고령층과 임시적 고용의 증가세)과 실질임금의 상승세 둔화 등으로 내수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
 - 셋째, 기업의 수익성 악화 추세, 자금조달 여건의 양극화로 저수익·저신용 기업들의 차환리스크가 3년 연속 상승하고 있고, 과차입 저소득 계층의 원리금 상환부담(가계부담 가중)으로 소비 여력이 빠르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
- 2016~18 중 국내경제는 연평균 3.8% 성장하여 2014~15년의 연평균 성장률인 3.7%보다 다소 높은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
 - 세계경제 성장률 및 교역확대에 따른 수출 회복세의 강화와 내수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들이 점차 효과를 내면서 소비·내수의 완만한 개선이 예상
 - 국회예산처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완만한 세계경기 회복세로 우리나라의 수출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감안

〈표 1〉 2015~2018년 국내 경제전망

단위 : %, 억 달러, 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국내총생산	3.0	3.6	3.8	3.9	3.7	3.7
민간소비	2.0	2.4	3.3	3.3	3.0	3.0
설비투자	-1.5	6.4	6.7	7.0	4.2	4.1
건설투자	6.7	1.7	2.4	0.4	1.8	1.0
총수출	4.3	4.6	6.3	7.4	7.7	7.6
총수입	1.6	3.7	6.0	7.2	7.6	7.4
경상수지(억달러)	798.8	831.9	792.3	766.0	751.3	727.7
상품수출(통관)	2.1	3.4	7.1	9.1	9.0	8.6
상품수입(통관)	-0.8	4.1	7.9	9.8	9.9	9.5
소비자물가	1.3	1.7	2.3	2.5	2.4	2.4
실업률	3.1	3.5	3.3	3.2	3.4	3.4
원/달러 환율(기준환율)	1,095	1,039	1,059	1,085	1,059	1,041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주 : 1. 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 기준임.

2. 환율, 국고채 수익률은 연중 평균.

3. 2013년은 실적치, 2014년 이후 수치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 2015년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비교해 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3.8% 성장을 전망하여 정부 전망치(4.0%, 새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2014년 7월)보다 0.2%p 낮은 수준

- 국회예산처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완만한 세계경기 회복세로 우리나라의 수출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감안

- 한편,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잠재국내총생산량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1~13년중 연평균 4.2%에서 2014~18년중 3.6%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²⁾

-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포함한 지난 6년(2008~2013년) 중에는 연평균 실질 성장률이 3.2%로 크게 하락하면서 동기간 잠재성장률도 3.5%로 하락

- 향후 5년(2014~2018년) 기간 중에는 연평균 실질성장률이 3.7%로 동기간 연평균 잠재성장률 3.6%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의 경기회복 국면이 예상

2) 자본스톡 신계열과 노동 투입, 실질GDP에 대한 과거자료와 전망치를 이용해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를 이용해 성장요인을 분해하고 생산투입요소와 자연실업률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잠재성장률을 추정

* 잠재성장률은 2014년 3.5%로 전년(3.4%)에 비해 소폭 상승하여 3.5%대에 이르고 2016년에는 3.6%에 달할 것으로 추정

*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정책시장정책에 기인한 노동투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경기회복 노력에 비해 둔화된 투자와 정체된 총요소생산성증가율로 인해 2016년 이후에도 잠재성장률이 3.6%대에 머물 전망

〈표 2〉 투입요소별 성장률 기여도 추이 및 전망

단위 : 연평균, %, %p

기간	실질성장률	잠재성장률	투입요소별 잠재성장 기여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2001~2010평균	4.4	4.4	0.1	2.0	2.3
2011	3.7	3.4	0.0	1.5	1.9
2012	2.3	3.3	0.4	1.4	1.5
2013	3.0	3.4	0.5	1.4	1.4
2014	3.6	3.5	0.7	1.5	1.3
2015	3.8	3.6	0.7	1.5	1.4
2016	3.9	3.6	0.7	1.5	1.5
2017	3.7	3.6	0.6	1.5	1.5
2018	3.7	3.6	0.6	1.5	1.6
2004~07년 평균	4.9	4.4	0.0	2.0	2.4
2008~13년 평균	3.2	3.5	0.0	1.6	1.9
2014~18년 평균	3.7	3.6	0.6	1.5	1.5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주 : 2012년까지는 투입요소별 실측치를 이용한 추정결과이고, 이후는 전망치에 기초한 추정치임.